

통합교육? 이제 우리 동양의 지체가 필요할 때*

김 보 경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철학박사

지적 장애인들과 연관시켜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상화’ 나 ‘통합’이란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는, 특히 서양의 경우, 과거 지적 장애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출생과 더불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되찾고 그들의 연령이나 성에 따라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나 전통에 일치되도록 교육이나 직업이나 이성과의 교제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정상화(normalization)’ 또는 ‘주류화(main-streaming)’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반학교로부터 거부당했던 아동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느 학교나 들어가서 또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법적 보장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상화나 통합교육이란 말이 실제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법적 ‘자유를 넘어 행복으로’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는가하는 몇 가지 근본적 의문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지적 장애인이라고 하여 거부한 학교가 이제는 그런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끔 준비되었다는 것인가? 그간 일반학교나 학급에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분리교육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그 무엇을 통합교육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아동이나 일반아동들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나 학급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의 전환이란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에서 생태학적 모델(ecological model)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의학적 모델이란 마치 병이 난 사람을 입원시켜 병을 치료한 뒤에 집으로 되돌려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지적 장애(intellectual disabilities)’란 용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치료로서는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학적 모델이 지적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표는

* 이 논문은 제20차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2011.08.21-26,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기초 발표한 원고의 전문입니다. 발표자의 허가를 얻어 우리 저널에 특별기고 논문으로 게재합니다.

의학적 모델과 생태학적 모델이 지적 장애인들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지적 장애인을 위한 의학적 모델과 생태학적 모델의 비교

의학적 모델(Medical model)	생태학적 모델(Ecological model)
격리(separation) 치료중심(treatment oriented) 개인적 요인 강조(elements emphasized) 닫힌 환경(closed environment) 수동적 역할(passive role) 일방적 지시(one-way instruction) 단조로운 환경(monotonous environment)	통합(integration/inclusion) 교육중심(education oriented) 총체성 강조(wholeness emphasized) 열린 환경(opened environment) 능동적 참가(active participation) 양방향적 소통(two-way communication) 풍요한 환경(enriched environment)

중요한 것은, 지적 장애는 일반적인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치료를 통하여 완치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의학적 모델은 서양의 지적 장애인들이 겪게 되었던 역사가 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원 또는 병원학교(hospital school) 또는 지역 센터(regional center)라는 이름하의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에서 불행한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정상화라든가 통합교육을 논할 때 주의할 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정상화나 통합교육의 역사적 배경은 동양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특수교육은 서양의 특수교육 선구자들이 처음 가졌던 장애인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만들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1966년부터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영국의 병원학교와 캐나다의 지적 장애인을 위한 지역 센터에서 직원이나 전문심리학자로 20년 이상 직접 일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1970년대에 일어난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정상화운동의 배후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그 때만 해도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은 벽돌로 지은 거대한 건물로서 중증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에서부터 행동적/정서적 문제를 가진 중복 장애를 가진 성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몇 백명의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보호 시설로, 지역사회와는 완전히 고립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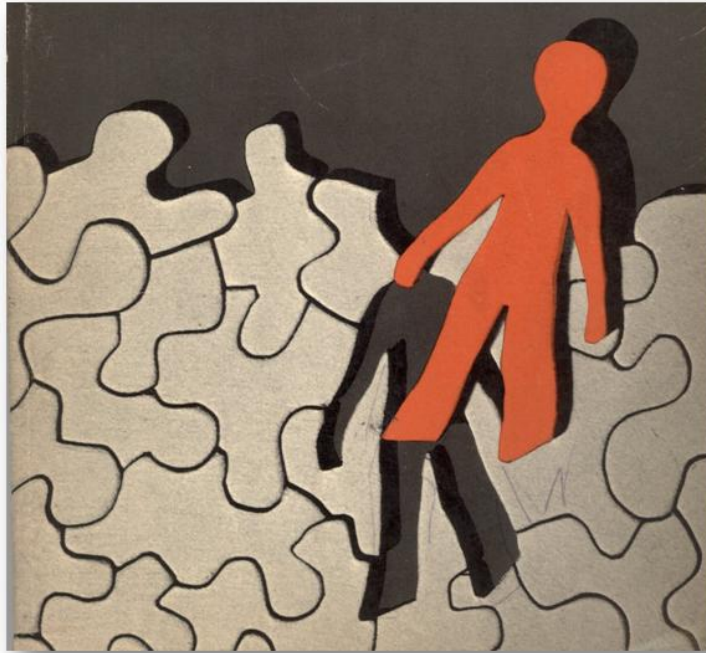
말하면, 한국에서 1980년대에 들어와 시작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비록 분리교육이라고 하나 서양에서 정상화나 통합교육을 강조하게 된 그 배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비록 우리들은 국가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분리교육이니 통합교육을 말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교육성과가 단지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준비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일반학교나 교실에 통합시킨다는 것만으로 더 좋은 교육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는 너무 급한 판단일 것이다.

과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이 얻게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이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적 장애아동들이 일찍부터 부모나 또래로부터 격리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극히 제한된 심리-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발달시키기 어려운 측면이나 또는 그러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되는 부적응 행동이나 성격상의 문제들이 통합교육을 통하여 예방하거나 보상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극행동(self-stimulatory behavior), 높은 불안감, 실패에 대한 기대(expectancy of failure), 자신감의 결여(lack of self-confidence),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지나친 사회적 동기(social motivation), 외적 통제소재(external locus of control), 친사회행동기술의 결핍(lack of social behavior skills) 등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일반학교나 교실은 우리들이 통합교육에서 기대하는 지적 장애아들의 성격이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통합교육은 분리교육에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만족시킬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표 2> 통합교육에서 기대하는 지적 장애아의 인성적 측면의 발달

- 사회-정서적 성숙(Socio-emotional stability)
- 독립성의 발달(Development of independency)
- 정상적 사회행동기술의 발달(Main-streaming of social behavior skills)
- 성공에 대한 확신감의 증가(Increase of expectancy for success)
- 외적에서 내적 통제 소재로(From external, to internal locus of control)
- 행복감의 증가(Feeling of happiness)

아래의 <그림 1>은 지적 장애아들을 일반학교나 교실에 통합시키려고 할 때 그들이 들어가게 될 학교나 교실의 분위기가 그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림 1>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인가?

학급/사회에 관한 네 가지 비유

통합교육의 성공은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일반학급에서 일반 아동들과 더불어 어떤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들은 장애 아동들이 그들이 새롭게 경험할만한 일반교실의 사회적 분위기를 네 가지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1) 정글로 비유되는 교실 분위기; (2) 목자와 양떼들의 관계로 비유되는 교실; (3) 장터와 같은 교실; 그리고 (4) 유기체로 비유되는 교실이다.

정글과 같은 교실. 일반학교 교실 분위기를 ‘약육강식’으로 상징되는 정글에 비유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험성에 의하여 언제나

긴장하고 불안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글과 같은 곳이다. 학교나 학급 안에서 학생들 간에 집단적 따돌림이나 신체적 폭행, 성적 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이 일어나고 교사 자신들까지도 학교나 교실에서 언제 돌출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감을 학생들에게 의하여 받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게 하는 경우조차 있다. 거기다가, 한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도 진학을 위한 극심한 경쟁적 분위기로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약육강식이니 적자생존이나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학생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다. 어떤 교사들은 지금의 학교 분위기를 ‘교실붕괴’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지적 장애들이 일반학교나 교실에서 우리들이 통합교육에서 기대하고 있는 성숙한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행복감으로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또한 일반 아동들의 부모들은 과연 얼마나 자기의 자녀들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과 친구로 서로 사귀며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며 수용할 수 있을까?



<그림 2> 정글(Jungle)

목자와 양떼에 비유되는 교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들어가게 된 심리-사회적 분위기를 목자를 맡없이 따라가는 양떼와 같은 형태로 비유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이다. 그리고 목자는 양떼를 목적지로 몰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약한 양이나 병든 양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아래는 목자의 양떼가 이동하고 있는 사진이다.



<그림 3> 목자와 양떼

일반 학교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미리 정해진 교과를 끝내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다. 그들의 관심은 개개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진도에 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지적 장애뿐만 아니라, 적응상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행동문제는 특히 일반 학급 수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장애 아동들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사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교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일반 학생들의 부모 역시 장애 아동들에 의하여 일반 학생들의 정상적 교육이 방해 받지 않을까 염려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업무량이 장애 아동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때로 교사들은 장애 아동들을 기피하는 행동도 보일 수 있다. 특히 장애 아동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교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 아동들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장터에 비유되는 교실. 장터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다. 장터는 공정하고 평등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엇인가 사거나 팔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돈이 없거나 팔 물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장터란 아무 의미도 없는 곳이다. 요즘은 학교가 장터와 같은 곳으로 변하고 있다. 학교는 아동들이 무엇이라도든 자기를 뽐내는 장소로 이용하도록 고무하고 있다. 그것이 지능이든, 창의성이든, 예술적 자질이든 심지어 용모이든 할 것 없이 무엇으로든 자기를 주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는 점차 무엇이든 아동들이 개발함으로써 장차 유망한 장사꾼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림 4> 장터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란 장터와 같은 교실에서는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장터와 같은 분위기를 학급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점차 그들은 교실 내 주류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유기체로 비유되는 교실. 유기체로 비유되는 교실은 통합을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교실이 되는 것으로, 장애 아동이나 일반 아동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또한 서로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림 5〉 유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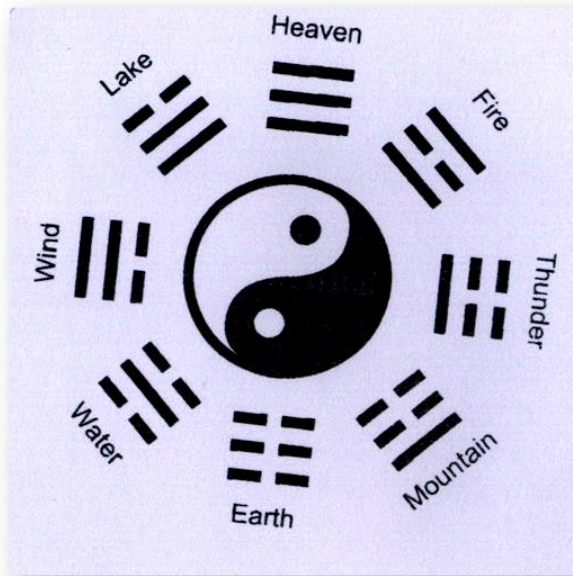
우리들의 몸으로 대표되는 유기체는 서로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가진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적 통합체다. 동일한 몸에 속하는 부분과 부분 사이에는 내외(内外)라든가 자타(自他)라든가 하는 어떤 경계도 없다. 그리고 부분과 부분 간에는 우월이라든가 열등이란 관념도 없다. 비록 부분들 중에는 약하거나 불완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중요하다. 왜냐 하면 어떤 부분도 전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약한 부분을 영광화하는 것이 유기체다. 예를 들어, 보통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하지만 오른손으로 금반지를 사고 왼쪽 손가락에 끼워 주는 것이 유기체의 성질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형태의 교실에서만이 장애 아동이나 일반 아동들이 통합교육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서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통합성에 관한 아시아의 전통

유기체로 비유되는 교실이나 사회는 꿈이나 가정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 유기체에 비유되는 우주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본성으로 그것이 각인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다.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은 여러분을 앉게 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만유인력(萬有引力)의 결과다. 우리들이 인공 위성을 타고 중력(重力)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 떠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앉아

있는 것으로 몸을 쉬게 할 수는 없다. 인간은 본래 자기라는 것이 없이 환경의 힘에 의하여 움직일 뿐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는 역사가 시작된 몇천년 전부터 인간 자신을 우주와의 통합적 관계에서 분리한 적이 없다. 아래의 태극도는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인 전통적 우주관과 인간관을 보여 준다.



<그림 6> 태극도

이 그림에서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태극도는 우주를 대표하는 그림이기도 하지만, 이 그림 자체가 인간의 몸과 마음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즉, 인간의 몸은 음양의 원리와 더불어 자연의, 하늘과 땅, 불과 물, 바람과 천둥, 호수와 산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지금의 과학자들이 개인의 머리카락 한 가닥 속에 들어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유전적 지도(genetic map)가 축소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이 우주 전체의 축소판이다. 동양의 전통적 한의학(韓醫學)에서는 실제 태극도가 보여주는 음양과 화수목금토, 오행(五行)의 원리로 병을 예방하도록 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한다. 인간의 몸과 우주를 동일시 하는 것이다. 태극도에 나타나는 아시아의 전통적 인간관과 우주관은 아시아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교육의 철학적 배경이 되어 왔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 역시 중국을 위시한 한국이나 일본의 전통적 사상과 일치되는 것으로, 천년 이상 아시아 전체의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불교의 우주관은 만물일체설(萬物一體說), 즉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연기설(緣起說, Yun-gi)로 일원론(一元論, monism)에 속한다. 불교는 우주를 꽃잎들이 첩첩히 쌓여 한 송이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꽃을 이루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본다. 유기체에 속한 부분과 부분 간에 아무런 장애도 없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화나 장미나 연꽃을 상상해도 좋을 것이다.



<그림 7> 연꽃

우리들이 우주를 태극도와 연꽃 그림이 상징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거대한 통합체로 본다면, 우주에 속한 크고 작은 모든 사물은 자타(自他)나 내외(內外)라는 의식이나 분별이 없이 총체적 관계에서, 마치 지구나 해가 다른 별들과의 관계에서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는 것과 같이 환경조건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으리란 것을 알게 된다. 사실 태극도에 나타나는 중국의 전통적 사상과 인도에서 온 불교가 만나면서 중국적 불교가 성립하게 되는 데 그것이 지금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특유의 불교인 선불교(禪佛敎)가 되었다. 아래의 심우도(尋牛圖)는 한국의 불교사원의 외벽에 흔히 그려져 있는 벽화로서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송나라 때부터 있었던 중국 본래의 8장의 심우도에 마지막 두 장의 그림, 반본환원과 입전수수가 첨가된 것이라고 한다. 심우도는 인간이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는 과정을 목동이 잃어버린 소를 되찾는 과정에 비유한 것이다. 우리들은 이 심우도에서 이전 행동경험으로 학습된 탐진치에 의하여 일어나는 심신의 동요를, 그것과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심신

의 고요함(좌선수행)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목우, 소 길들이기)를 통하여 빈 마음(인우구망)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과정을 학습이론에 있어서의 소거 또는 탈학습에 비교함으로써 도교와 불교의 철학 사상을 유기체에 비유되는 사회건설을 위한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심우도는 또한 심리치료를 위한 공식(公式)으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8> 심우도

이것은 지금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화가가 붓을 대기 전의 텅 빈 캔버스(canvas)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과 거의 같다. 캔버스가 본래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위에 묻은 물감을 씻어내면 다시 공백이 들어나게 될 것이다. 불교와 행동주의 심리학 간의 유사성은, 학습이론 역시 중국의 도교사상이나 불교의 무아(non-self)사상과 마찬가지로 일원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우주와 통합적 관계에서 보면 자기(自己)라고 하는 미리 고정(固定)된 실체(實體)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S-R설 역시 여기에 속한다. 자기란 학습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동양사상이나 선사상은 학습의 결과인 인간의 마음을 마치 “외부로부터 침입한 도적”으로 보고 이를 쫓아내는 것에 수행의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선 수행은 이전 행동경험으로 오염된 생각을 씻어내고 본래 비어있는 자성(自性)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이전 경험으로 조건화되었던 자신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미움이나 편견없이 사물을 보게 된다. “산은 산, 물은 물”로 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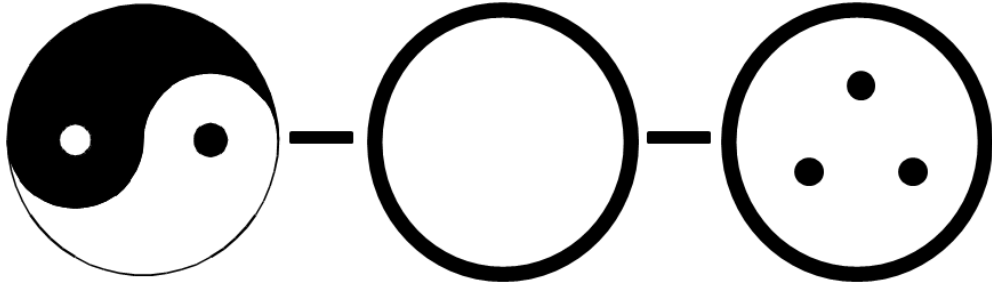
된다. 사실 우리들은 학습의 그림자에 의하여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문자 그리고 논리는 모든 것을 분리된 형태로 지각하고 판단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침이 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낭만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 미신(迷信)에 속한 말이다. 이러한 인간의 현상학적 경험에 대하여 유명한 물리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인간은 소위 ‘우주’ 라는 전체의 부분으로, 시공간적 제한을 받고 있다. 사람은 자신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신을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보는 의식상 시각적 망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망상은 일종의 감옥과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들 주위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만 개인적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애정을 느끼게 하도록 한정시킨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살아 있는 모든 창조물과 아름다운 자연 전체를 포용할 수 있도록 애정의 폭을 확장하는 일이다(Peper와 Holt, 1993에서 따옴).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자신을 그가 속한 우주나 자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분리된 것과 같이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객관적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동시 그러한 망상에서 벗어나 이웃이나 자연전체가 자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태극도에 나타나는 중국을 위시한 동양의 전통적 사상이나 불교의 연기사상, 그리고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중국의 도교사상(道敎, Taoism)과 불교가 만나 성립된 선사상, 그리고 인간의 미신적 사고를 벗어버리도록 하는 과학의 발전은 모두 자연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는 인간의 주관적 사고가 인간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며, 우주의 속성은 불교에서 삼학(三學), 세 가지 학습과제라고 하는 계정혜, 즉 사랑(love)과 행복(happiness) 그리고 지혜(wisdom)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학습 및 행동주의 심리학은 도교나 불교에서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란 본래 비어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들이 본심(本心)이라고 믿고 있는 마음이 이전 행동경험으로 조건화되고 학습된 것임을 지적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미 조건화되고 학습된 부적응적 행동을 소거(消去, extinction) 또는 탈학습시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아직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적응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다.



<그림 9> 일원론(一元論), 도교와 선 그리고 학습이론의 공통점

인간을 우주와의 통합적 관계 또는 자연과의 생태학적 관계에서 보면 우리들이 현재 ‘자기’라고 하는 어떤 ‘작은 사람(little person)’이 자기의 내면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통제한다고 믿는 것은 미신(迷信)에 속한 것이다. 인간을 우주와의 통합적 관계에서 보면, 인간은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무아(無我)로 인연의 힘에 의하여 움직일 뿐’인 것이다. 학습이론에서 화살이 공중에서 날아가다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물리적 법칙이나 산소(O)와 수소(H)가 만나 ‘물(H₂O)’가 된다는 화학적 법칙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도 인간에게는 ‘자기’라는 미리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학습이론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텅 비어 있는 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환경조건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원리로 한다. 놀랍게도, 명상이나 선 수행을 통하여 심신을 안정시키고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무념(無念)을 유지하면 이전 행동경험으로 조건화된 감정이나 행동이 소거(消去)된다. 행동치료에서 이완(relaxation)으로 일반화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나 공포증을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의 인지치료자들 역시 인간의 왜곡된,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두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재고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들은 자신을 전체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부분이며 곧 자기인 자연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한다.

우리들은 지금 지적 장애인들을 위하여 그간의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전환하려는 문턱에 와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이라 할지라도 인간관에 대한 철학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들이 통합교육에서 기대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만약 일반교실이나 일반학교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사회가 계속 정글이나 목자와 양떼, 장터와 같은 이기적 그리고 경쟁적 환경으로 비유된다면 그것은 인간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시각적 망상의 결과다.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절이 있었다. 여름 어느 날 소나기가 오자 지붕에서 빗물이 방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모두들 빗물을 받을만한 적당한 그릇이 이 절

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떨어지는 빗물을 보고만 있을 따름이었다. 그 때 어떤 못생기고 어린 동자 스님이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대나무로 엮은 낡은 바구니를 가져와 빗물에 받히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행동에 웃었으나 나이 많은 주지 스님은, 그 스님의 행동을 보면서 깨달음이란 것이 바로 저런 것이라고 설했다고 한다.

우리들이 보통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행동일 수 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성인과 오래 있어 본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은 그들의 때 묻지 않은 누구나 가진 본성에서 나온다. 그들이 잔피를 부리는 IQ는 낮을지 모르나 그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배려와 협동심으로서의 EQ는 누구보다 높을 수 있다.

유기체로 비유되는 학급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유기체로 비유되는 교실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각각 독특한 개인으로 특수교육 대상이 된다. 이것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 교육 계획(IEP)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 학생들의 특성은 전체적으로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근본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어떤 개인도 자신을 무력하다든지 가치 없다든가 또는 잘났다거나 못났다고 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이러한 교실에서는 모든 아동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장차 그들이 창조할 사회를 위하여 서로 배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새로운 세계 교육을 위하여 아시아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

과학과 기술이란 자연의 모방에 불과하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창조하거나 발명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사람은 망상으로 살 수 없다. 만약 과학이나 기술이 인간의 망상에 의하여 잘못 쓰이게 되면 우리들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세상은 파괴된다.

인간은 우주의 부분이며 인간의 본성은 자연과 사회에 하나로 통합되도록 본래 구성되어 있고 기능하게 되어 있다. 아시아는 일찍부터 중국의 도교와 인도의 불교를 통하여 이러한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고 아시아에서는 항상 인간 대 인간, 그리고 인간 대 자연 간의 통합적 관계를 강조해 왔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IQ가 학교의 주된 관심사가 이상 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아왔으며,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제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또한 서로 행복해 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도록 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교육제도가 서양의 것을 모방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통합이 우리들의 옛 아시아의 지혜에 대하여 눈 뜨게 하는 동시에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우리 아시아인들은 과거로부터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는 동양의 지혜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게도 될 것이다.

특수교육이 의학적 모델로부터 생태학적 모델로 변한다는 것은 분명 아시아의 전통적 우주관과 인간관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통합하는 철학적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특수교육을 일반교육에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육을 특수교육에 통합시킴으로서 누구라도 소외됨이 없이 전체로서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Peper, E., & Holt, C. F. (1993), *Creating wholeness: A self-healing workbook using dynamic relaxation, images, and thoughts*. Plenum Press. New York.

Integration? Now, the Oriental wisdom is needed

Bo Kyung Kim, Ph. 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of Education

Current movements in the special education, shifting from separation to the inclusion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like: Is the regular classroom prepared to accept and provide an adequate education for the children who had been rejected in the past, because of their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deal with in the regular classroom? What has been changed so far in the regular school and classroom so that they can guarantee that the children with ID included be happy and learn something special that they could not learn in the separate system? What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he regular classroom must provide not only for the children with ID but all of the children benefitted by the inclusion?

Four analogues of the classroom/society

The success of the inclusion will be depend on what kinds of psychological experiences the children with ID would have with other children in the regular classroom. We can assume four different social atmosphere the children might experience in the new situation. These are: (1) the classroom atmosphere similar to jungle; (2) the shepherd-sheep; (3) the market place; and (4) an organism.

Classroom similar to be in the jungle. The law of jungle is “the fitness for survival.” If the children with ID are included in the classroom alike jungle, they cannot be survived. It is well known that the school today is extremely competitive among the students, for the academic achievement, even from the elementary school level.

Classroom similar to the shepherd-sheep atmosphere. The atmosphere of the regular classroom where the children with ID included, might be an authoritarian style similar to the teacher-students relationship to be the shepherd-sheep like. In this environment, all of the children are expected to conform to the same rules without any exception. In this type of classroom the children with ID can be easily considered to be the obstacles for the progress of the class. In deed, the needs for the separate education had been originated from these authoritarian styles of traditional educational system.

Classroom similar to a market place. The market place is where people sell and buy. The market place is fair and just as far as the persons have money to buy or something to sell. The market place, however is nothing to do for the persons who have no money or goods to sell. These days, the school becomes more like a market place where the students show off whatever they got, the IQ,, talent or even the physical appearances and preparing themselves as smart sales persons. If the children with ID are included in the classroom similar to the market place, they will feel worthless and gradually pushed away from the mainstream of the class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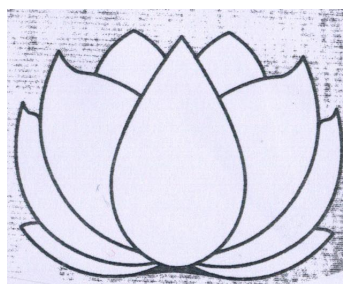
Classroom similar to an organism. The classroom alike an organism is the most ideal pattern of the classroom where the all of the children,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can be happy and learn form each other. The organism like our body is consisted with various parts with different shapes and functions integrated as the whole, There are no boundaries among the parts and there are no divisions such as ‘in or out’ or ‘you or me.’ There exist no concepts among them such as ‘superior or inferior.’ All are important, even a part is weak and incomplete because, all of them are in-separable. The weaker part is rather glorified, as an example, the right hand works harder than the left but the right hand buys a gold ring and puts it on the left hand finger. We are certain that in this type of classroom, both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children can be benefitted by the integration and they can learn each other.

The Asian tradition in terms of integration

The organism alike society or classroom is not a dream but it is already mapped in human nature, because, man is a part of the organism like universe. The following Tae-guk do shows it. The national flag of Korea also, represents it.



Buddhist's view of the universe is the same. And Buddhism has been the inspiration and source of Asian history and culture for centurie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off Buddhism is “yungi(緣起)” that means every things in the universe are integrated as a whole. The universe is seen by Buddhism as a flower that is consisted with a numerous petal. You can imagine a rose or a lotus. In Buddhism there is no concept like ‘you or I’ neither ‘In or Out.’



Once Albert Einstein, a famous scientist, stated the similar as following.

A human being is part of the whole, called by us ‘universe,’ a part

limited in time and space. He experiences himself, has thoughts and feelings, as something separate from the rest—a kind of optical delusion of consciousness. This delusion is a kind of prison for us, restricting us to our personal desires and to affection for a few persons nearest to us. Our task must be to free ourselves from this prison by widening our circles of compassion to embrace all living creatures and the whole of nature in its beauty(quoted from Peper and Holt, 1993).

According to Buddhism as well as Einstein's view of man, it is a delusion to think himself as separated and independent from the society he belongs and others. That means the school and social system we see today alike jungle, the shepherd—sheep, or market place is based on the optical delusion, not based on the true nature of man.

Educational program in an organism alike classroom

In the organism alike classroom, all of the children are seen as unique and require the special education. That means every body needs the individual education plane(IEP),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mselves are considered to be the essence to make a beautiful flower as the whole. In this new system, no body need to feel helplessness or worthlessness nor to be superior or inferior in the classroom. All children will be happy and learn from each other for the future society they will create.

Its time for Asian to take leadership for the new world educati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is mere imitation of the nature and there is nothing man can create or invent by himself. Man cannot live by delusion. If the science and technology are misused by the delusion of man, the world will be destroyed as we witness today.

Man is a part of the universe and the nature of man is innately structured to function to be integrated into the nature and the society he belongs. The Asia was the one who discovered this law of the universe due to the Taoism in old China and Buddhism from India. Therefore, in

Asia it has been always emphasized the integral relationships among man.

We have seen plenty that the IQ cannot be the main concern for the school anymore, but what the children should learn is how to relate to others and be happy together. We, Asian educators can initiate the change of the school so that everybody in the school can be happy and contribute to the society as the whole, with what they have.

It is true that the Asian education has been an imitation of the West. The present inclusion movements in special education have awakened us that our ancient Asian wisdom can contribute to the change by showing the ways, in what direction the speci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together should go. We need to re-visit our wisdom inherited from the past and find the answers. In this way we can establish our own identity in education.

Reference

- Peper, E., & Holt, C. F. (1993), *Creating wholeness: A self-healing workbook using dynamic relaxation, images, and thoughts*. Plenum Press. New York.